

# 보이지 않는 노동을 인식하기

## - 양정욱 <서서 일하는 사람들>#22 리뷰

지안 회원,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 ‘보통의’ 노동을 인식하기

넷플릭스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요리계급전쟁> 시즌2 우승자 최강록은 “보통의 요리사”라고 자신을 설명했다. “저는 특출한 음식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전국에 숨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요리사 분들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흑백요리사>의 경연에서 등장하는 요리 과정들은 대개 진귀한 재료들을 사용해, 전문적인 테크닉으로 잘 접하기 어려운 음식을 만드는 것을 보여준다. 음식을 만든다는 아주 일상적인 행위, 누군가의 집이나 집 근처 식당에서 보았다면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을 이 과정은 셰프들의 손과 프로그램 구도 속에서, 청중들이 지켜볼 만하고 주목하고 탐구할 만한 대상이 된다. 그런데 그 마지막 여성에서 우승자는 요리사로서 생계를 잊고, 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노동과 그 가치를 조명했다.

일상에서 이러한 보통 노동을 인식하는 건 쉽지 않다. 노동의 가치를 성과 중심으로 판단하기에, 성과가 노동과정의 가치마저 결정하는 것처럼 여긴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동은 끝없이 반복되는 작업, 대기하는 시간, 일상 속 작은 부분들로 이뤄져 있다. 성과주의는 바로 그것들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만들고, 노동의 중심과 주변을 경계 지어 저임금, 여성, 필수, 불안정노동을 인식하기 어렵게 한다. 위 에피소드는 요리가 셰프의 손을 거쳐야만 주목받을 수 있지만, 그 요리 뒤에는 여러 숨은 노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 지속되는 노동의 감각

2025년 2월,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한 양정욱은 주로 움직이는 조각을 설치하는 작가다. 그는 올해의 작가로 선정되기 직전 작업실을 정리하고, 미술도구들을 당근에 판매했다고 인터뷰를 해 주목을 받았다. 작품 활동 기간 동안 그는 편의점에서

야간노동을 하거나, 물류센터에서 노동을 해왔다. 특히 <서서 일하는 사람들> 연작 중 #9 번은 코로나 시기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배달, 호출 노동 등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점에 착안했다고 밝혔다.

양정욱이 2010년대 초반부터 이어오고 있는 연작 <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의 작업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목재와 실, 전구 등의 소재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아래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목재나 전구 등으로 구성된 조각을 실이 줄로 잇고 있는 형태다. 모터가 돌아감에 따라서, 조각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움직이고 일정한 리듬을 만든다.

리듬은 정해진 규칙대로 구조물이 움직인다는 안정감일수도 있지만, 이 움직임을 ‘서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와 연결하여 읽어냈을 때는 어떨까? 우리는 이 구조물이 좌우나 위 아래로 흔들리는 움직임, 반복적인 동작과 같은 사소한 움직임들에서 노동과정이 어떤 동작들로 이루어져있는지 상상해볼 수 있다. 나아가 이 키네틱 아트가 루프처럼 되돌아오는 움직임이라는 점을 통해 반복적인 노동들이 어떤 세세한 동작들로 이루어져있었는지 연결시켜볼 수 있다. 움직임은 어떤 시작과 끝이 존재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루프의 시작을 찾도록 한다. 하지만 이 구조물에는 움직임의 지속과 연결만 있다.

이런 점에서 구조물이 지속적으로 흔들리고 움직이는 것을 노동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로부터 긴장감을 약간 느낄 수도 있다. 노동은 결국 계속되는 움직임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이다. 특히 구조물의 움직임에는 구조물을 이루고 있는 부속품들이 멈춰있는 시간들이 포함된다는 사실은 노동이 대기의 시간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감각할 수 있다.



▲ <서서 일하는 사람들 #22> (2021, 나무, 모터, 백열전구, 실, 220×150×150cm. 작가 소장). © 양정욱. 출처: 국립현대미술관.

키네틱 아트를 통해서 노동과 일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양정옥 작가의 작업은 일상에서 보이지 않는 노동의 반복과 지속을 떠올리기에 적합하다. 아주 작은 반복적인 움직임들이 연결되고, 다른 움직임에 영향을 준다는 이 구조물의 작동 방식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노동들, 혹은 내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노동의 일상성에 주목하게 한다. 목재들은 기울고 변화하면서 또 다른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내 정해진 시작점으로 돌아온다. 그렇게 사이클은 반복된다.

## 보이지 않는 노동의 서사

여기에는 어떤 특정한 중심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작업의 앞이나 뒤, 혹은 감상의 순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구조물의 각 부분들은 모두 일정하지 않은 독특한 모양새로 만들어져 있고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각 요소들이 움직임으로써 만들어내는 전체 구조물의 커다란 리듬은 각 요소들을 포괄하면서 하나의 서사를 만든다.

어떻게 이 구조물을 서사로 볼 수 있을까? 왜 그래야 할까? 어떤 노동이 이야기의 소재가 되고 상상될 때,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들이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이야기로 엮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코로나 시기 동안에, 돌봄 노동, 운송 및 배달노동, 청소노동과 같은 필수노동이 사회 기능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경험한 바 있다. 일상이 멈춘 시기에도 이 노동들은 지속되면서 사회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제공했다.

마찬가지로 1월 13일에 시작된, 서울버스노동조합의 대규모 파업은 버스를 운송하는 노동의 촘촘함이 어떻게 일상을 구성하는 기반이 되어왔는지를 드러냈다. 파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나 임금 문제를 조명하기 이전에, 우리는 그 일상 속 노동을 하나의 이야기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버스 운행이 마치 앞서 본 <서서 일하는 사람들>의 구조물의 리듬, 정지, 긴장의 움직임들처럼 끊임없이 서로 연결되는 노동의 결과라는 점 말이다.

이런 관점에서 노동을 보는 일은 우리를 둘러싼 노동들을 주변화·비가시화하는 감각들을 의심하는 데서 출발한다. 주목받고 불거리가 되는 노동만이 서사로 만들어지는 세계에서, <서서 일하는 사람들> 시리즈는 지루하게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노동과정을 조명하면서, 일상 속 움직임과 리듬이 지닌 힘을 보여주고 있다. 